

계명문화대학교 '가족회사 CEO 조찬 문화포럼' 정착

김의진 기자 | 승인 2018.04.11 09:45

12월까지 14회 특강...특별 프로그램 4회 운영



▲ 계명문화대학교 제3기 가족회사 CEO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명호)는 지난 5일 보건관 대회의실에서 '계명문화 제3기 가족회사 CEO 조찬 문화포럼'을 열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는 가족회사 CEO 조찬 문화포럼은 가족회사 CEO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시리즈로 운영되고 있다.

김해숙 꽃과 사람들 대표의 '리더들의 감성,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주제특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모두 14회의 특강과 4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박명호 총장은 "처음 시작할 때 바쁜 CEO들이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지, 감성적 변화가 일어날지 등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거듭할수록 인원도 늘고, 어느새 가족회사 CEO들에게 문화감성 프로젝트로 정착됨을 느낀다. 기업을 발전을 위해 대학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명문화대학교, 제3기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 수료식

김을규 기자 | 승인 2019.02.01 17:22



[일요서울 | 대구 김을규 기자]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명호)는 지난 달 30일 대구교육박물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제3기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 수료식을 거행했다.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은 우리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족회사 CEO 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시리즈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2015년 10월 이동순 교수의 '우리가요의 내면세계' 강의를 시작으로 정규과정 44회와 도자기체험 등 특별행사 15회를 진행했으며, 2018년에는 14회차로 구성해 실시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제3기 회장 문필재(영진건업) 대표는 “2주에 한번씩 개최되는 포럼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어 회사에도 적용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만들어 주신 박명호 총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기 CEO들이 대학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대학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명호 총장은 “우리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 능력을 CEO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되어진다”라며, “가족회사는 우리대학과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의 장점을 잘 공유하고 도와 지역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 제4기는 제3기보다 더욱 알차고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9년 3월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계명문화대학교 가족회사는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가족처럼 상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대학 인프라를 통해 해결해주고 기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특별한 가족관계이다.

가족회사제란 대학과 기업간의 맞춤형 교육·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대학은 수요자 중시 교육을 완성하고 기업은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수익을 창출하는 동반자적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관련기업들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신연구기자재 공유,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 교류 등의 협정을 맺는 제도이다.

계명문화대학교는 1교수 1사 제도를 도입해 가족회사별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각 사별 지도교수로 하여금 가족회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토록 제도적 기반 구축하는 등 타 대학과 달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을규 기자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대경일보

HOME > 종합뉴스 > 대학/교육

계명문화대, 제3기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 수료

대구/신지선 기자 승인 2019.02.06 20:42



▲ 제3기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을 수료한 CEO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좌측부터 문필재 대표, 박명호 총장, 신정민 원장)/계명문화대 제공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달 30일 대구교육박물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제3기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은 우리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족회사 CEO 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시리즈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 10월 이동순 교수의 '우리가요의 내면세계'강의를 시작으로 정규과정 44회와 도자기체험 등 특별행사 15회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14회차로 구성해 실시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제3기 회장 문필재(영진건업) 대표는 "2주에 한번씩 개최되는 포럼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어 회사에도 적용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만들어 주신 박명호 총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기 CEO들이 대학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대학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명호 총장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 능력을 CEO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족회사는 우리대학과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의 장점을 잘 공유하고 도와 지역과 사회 발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 제4기는 오는 3월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계명문화대 가족회사는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대학 인프라를 통해 해결해주고 기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특별한 가족관계이다. 또한 1교수 1사 제도를 도입해 가족회사별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각 사별 지도교수로 하여금 가족회사를 주기적으로 방문토록 제도적 기반 구축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신지선 기자 sjs2272@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계명문화대, 가족회사 CEO 문화역량 높여

조찬문화포럼 수료식 가져

계명문화대학은 최근 대구교육박물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제3기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 수료식을 가졌다.

'가족회사 CEO 조찬문화포럼'은 계명문화대학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족회사 CEO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시리즈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2015년 10월 이동순 교수의 '우리 가요의 내면세계' 강의를 시작으로 정규과정 44회와 도자기체험 등 특별행사 15회를 진행했으며, 2018년에는 14회차로 구성해 실시했다.

제3기 회장 문필재(영진건업) 대표는 "2주에 한번씩 개최되는 포럼을 통

해 많은 영감을 얻어 회사에도 적용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만들어 주신 박명호 총장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명호 총장은 "대학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 능력을 CEO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된다"며 "가족회사는 우리대학과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의 장점을 잘 공유하고 도와 지역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